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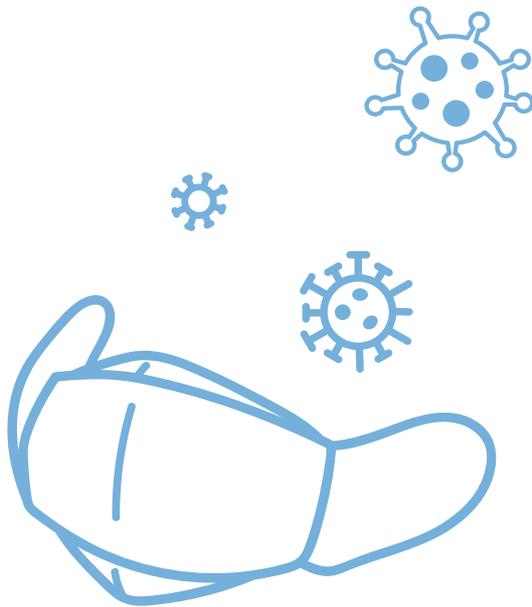
04 issue



코로나19가 가져온 삶과 노동의 변화

- 유럽의 시사점
(Living, working and
COVID-19 e-survey)

안전보건정책연구소 연구기획부
김유리 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과 노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동과 서비스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동하며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에도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한 보건, 돌봄, 택배와 같은 필수노동자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여행, 항공, 운수업과 같은 업종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노동자 대량 해고, 폐업 등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 19는 경제활동 방식을 변화시켰고 개개인의 일상적 삶을 뒤흔들어 놓았다.

코로나19 이후 일과 삶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또 이것이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하고 이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2020년 4월과 7월, 유럽위원회(EC) 산하 유로파운드(Eurofound)는 ‘Living, Working and COVID-19’라는 주제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유럽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9월 말에 발간한 이 조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개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시민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노동환경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면서, 노동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국내외 산업안전보건 연구 기관은 노동의 미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선제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때다.

노동의 미래는 새로운 조직 설계, 로봇의 도입, 인공지능의 활용 등 노동환경 변화와 업무의 변화, 작업자에게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 기술의 발달과 진보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노동환경과 노동방식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주며, 작업자에게는 안전보건 및 삶의 질(well-being)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노동자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더 나은 삶을 위한 유급휴가와 적절한 임금, 고용 안정, 건강한 리더십 등은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이러한 개념들은 노동자의 기본 욕구일 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 사회,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다만 이와 같은 이슈의 중요성과 필요성, 노동환경, 작업 및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노동 및 산업안전보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고, 종전에 비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미래 산업안전보건의 불확실성 및 주요 현안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한다.

분석방법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상과 노동환경의 변화를 포착하여 위기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온라인 설문조사 「삶과 일 그리고 코로나19(Living, working and COVID-19)」를 실시했다. 2020년 9월 말 발표된 제1차(2020.4월 실시) 및 제2차(2020.7월 실시) 설문조사 분석보고서를 통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마주한 위기에 대해 조명해 보았다.

삶과 노동 그리고 코로나19

코로나19는 전 세계 시민의 삶과 노동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유로파운드는 유럽연합 회원국 응답자들의 생활과 노동 환경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력에 대해 2020년 4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¹⁾ 설문은 현재까지 총 두 차례(4월, 7월) 수행되어 답변 시기 차이에 따른 답변자들의 상황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제1차 조사(2020.4월) 수행 시 대부분의 국가는 봉쇄 조치(lock down)가 발령된 상태였고, 제2차 조사(2020.7월 실시) 시기에는 사회 및 경제 분야에서 닫힌 문을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한 시기였으므로, 조사 시기에 따라 각국 응답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설문조사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비롯하여 고용상황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분석했다.

1 코로나19와 고용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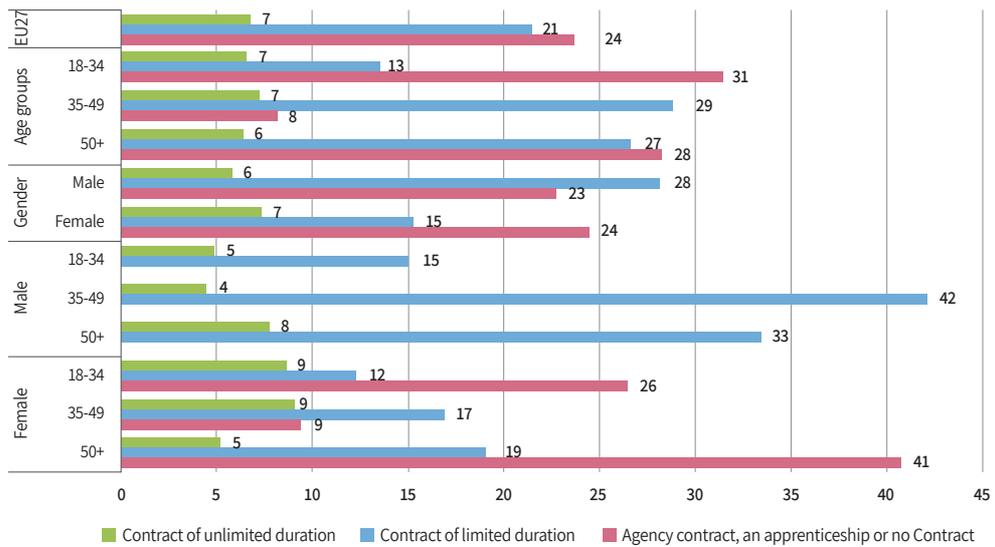
설문결과 응답자 중 8%(유럽 평균)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응답자 중 2%는 노동활동 중단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²⁾ 총 10%의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와 스페인이 각 18%를 기록하여 최고 수준이었으며, 이 뒤를 헝가리 및 루마니아(각 14%)가 이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률은 노동자의 성별에서도 소폭 차이를 보여, 여성 노동자의 9%, 남성 노동자 8%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했다. 세대별로 구별하면 35세 미만의 응답자 중 약 10%가 일자리를 잃었고, 35세에서 49세의 노동자들은 7%를 상회하는 수준의 실업률을 보였다.

1) 온라인 설문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유럽연합 회원국에서의 삶과 노동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동 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유로파운드가 기존에 실시하던 설문조사 EQLS, EWCS와 성격이 달리고 있으며, 비확률적 샘플링(non-probability sampling) 방법론을 채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고용상태, 일-가정 양립(워라밸) 및 코로나-19 기간 동안 원격근무의 활용 등을 담았다.

2) 노동활동 중단 사유에서 질병, 장애, 가사 및 교육의 목적에 따른 은퇴, 퇴직은 제외하였다.

한편, 설문결과는 봉쇄조치 해제 이후 대부분의 응답자의 상황이 개선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1차 설문조사 시 약 49%의 응답자가 팬데믹 기간 동안 평소보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으나, 2차 조사 시 상황이 다소 진전되어 37%의 응답자만이 근무시간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자택에서 원격근무를 실시한 응답자들은 단 28%가 근무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근무시간의 감소는 주로 포르투갈을 제외한 남부유럽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상업/서비스업, 건설업 종사자(각 52%) 대부분이 타격을 받았고, 운송 및 산업부문에서도 각 48%, 47%의 응답자가 근무시간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근무시간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업종은 공공행정 및 보건부문이었다(각 25% 미만 응답). 향후 실업가능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약 20%의 응답자가 3개월 내에 실업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으며, 실업가능성에 대해 가장 취약한 집단은 35세에서 49세 사이의 계약직 남성 노동자였다 ([그림 1]).



[그림 1] 계약 종별에 따른 향후 3개월 내 실업가능성 (유럽평균, %)

2

코로나19와 가계 경제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1차 조사결과보다 2차 조사 결과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1, 2차 조사 기간 동안 재정상황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1%로, 코로나19 이후 가계 경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직자 및 자영업자 중 각각 69%, 54%가 재정상황의 악화를 토로하여, 피고용자 집단과 무직자 및 자영업자 집단의 경제적 양극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 2차 조사를 통틀어 평균 약 10%의 응답자는 공과금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용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체납자 비율이 낮았고, 자영업자의 경우 1차 대비 2차 조사 시기에 전반적으로 체납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무직자의 경우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 시 공과금, 통신비/인터넷, 의료비/보험금 부문에서 체납자 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1 고용 종별 체납자 비율(유럽평균, %)

구분	주택임대/ 담보대출		공과금		신용대출		통신비/인터넷		비공식 대출 (개인대출)		의료비/보험금	
	4월	7월	4월	7월	4월	7월	4월	7월	4월	7월	4월	7월
평균	8	8	11	11	10	10	9	10	9	9	7	8
피고용자	6	7	9	9	9	9	7	7	7	7	4	5
자영업자	16	12	17	12	17	11	13	9	13	10	13	11
무직자	22	20	28	32	24	25	23	30	21	22	15	22
은퇴	5	3	7	7	6	6	5	5	6	4	6	5

비고 : 초록색 셀과 붉은 색 셀은 각각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감소 및 상승을 나타낸 것임

3

코로나19와 정신건강

1, 2차 조사 기간 동안 봉쇄조치가 해제되면서 대부분 국가의 응답자들의 경제적 상황 및 정신 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워라밸)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 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순이었으며, 1차 조사 대비 2차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삶 만족도 수준이 세 국가 모두 상승, 정신건강 수준은 대폭 상승하였다. 반면 국가별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률이 높아지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실업상태인 응답자들의 경제 전망은 특히나 심각하여 적절한 사회적 보호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들은 심각한 정신건강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실업 및 고용 불안이 정신건강의 악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유발된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을 정상수준으로 회복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나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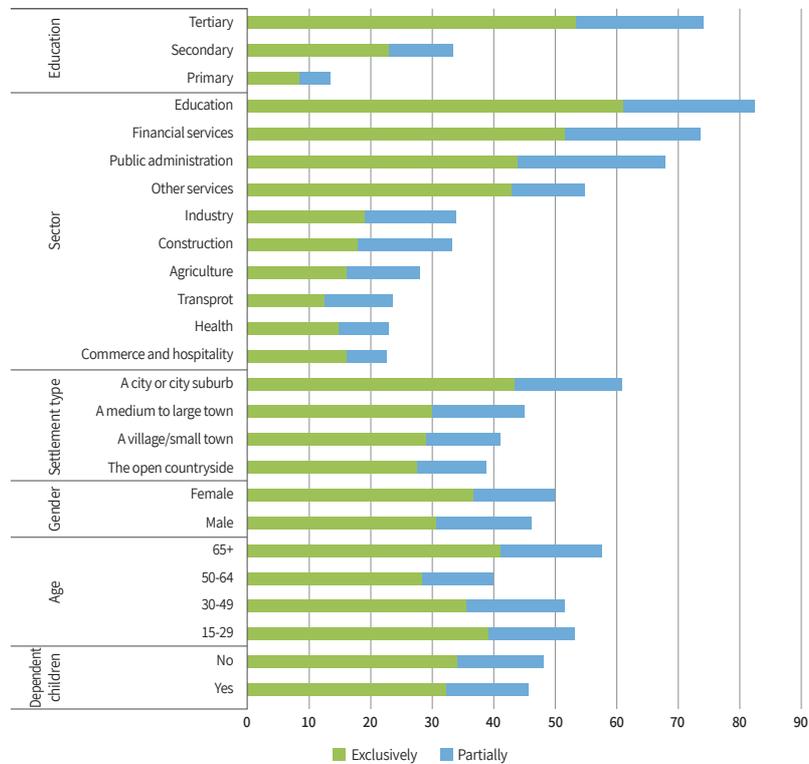
4 코로나19와 원격근무

코로나19는 원격근무의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원격근무는 전체 노동시간의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원격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비교적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이들의 교육수준 및 경제적 회복력이 높은 수준이었고, 원격근무 조치가 결론적으로 이들에게 팬데믹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인 가정에 격리되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원격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가정에서 노동하는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표 2 유럽연합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업무 장소 및 주당 근무 시간

연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업무 장소	응답 노동자 비중(%)	주당 근무 시간(h)
1	자택에서만 근무	33.7	38.9
2	자택, 직장 및 기타 장소 등 다양	14.2	41.2 ¹⁾
3	직장 및 기타 장소 등 자택 외의 장소	52.1	40.4
합계		100.0	40.0

비고 1) 41.2시간 중 19.3시간은 자택에서 근무



[그림 2]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근무를 경험한 노동자 현황 분석

5

「삶과 일 그리고 코로나19」의 정책적 맥락

전례 없는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영향은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 영향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유럽집행위원회는 2020년 유럽의 경기 침체가 악화되어 GDP가 -8.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연합과 회원국들은 팬데믹에 따른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 정책은 주로 국가 경제 재건, 일자리 보호, 사회적 결속 강화를 중심으로 꾸려졌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연합의 재건노력을 위해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고(2020.5.27), 27개 회원국의 정상들은 집행위원회 특별회의를 통해 동 계획에 전원 동의하였으나(2020.7.21.) 유럽의회와 회원국 간의 교섭으로 인해 여전히 계류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처한 현 상황은 사회적으로 동등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유럽사회권기둥(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EPSR)³⁾의 도입을 통해 모든 시민의 소득원 보호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유럽사회권기둥(EPSR) 도입의 일환으로 회원국 간 일괄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도입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 또한 크게 줄어, 실업을 감소를 위한 긴급대책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주목받고 있어 관련 정책 및 지원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결론

「삶과 일 그리고 코로나19」 조사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해 촉발된 개인의 삶 및 노동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조사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설문조사는 일상생활과 노동의 측면에서 팬데믹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은 부문을 발굴하고, 계량/비계량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재건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안, 정책, 제도 수립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이를 연구하고 고심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할 필수적인 노력이다. 미래는 극한의 기후 및 팬데믹과 같이 예상되는 혹은 예측할 수 없는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사건이나 기술의 진보는 업종과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빠른 속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고 유연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산업안전보건 이해관계자의 몫이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미래에 대비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을 둔 산업안전보건 연구를 수행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유럽연합 시민이라면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선언. 2015년 울커 EU 집행위원장이 최초로 언급하였으며, 총 20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